

## 쇼팽 작품의 무용음악적 특성 및 활용

\* 김은수

|    |                        |
|----|------------------------|
| 목차 | Abstract               |
|    | I. 서론                  |
|    | II. 쇼팽 작품의 무용음악적 특성    |
|    | III. 무용을 위한 쇼팽 작품 활용방안 |
|    | IV. 결론                 |
|    | 참고문헌                   |

---

\*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공연예술학부 부교수

논문투고일 : 2022.11.05

논문심사일 : 2022.11.08

게재확정일 : 2022.12.13

## Characteristics and utilizations of F. Chopin's works as dance music

Kim, Eun-soo · Kookmin University

---

F. Chopin is a composer who expressed the emotions of the Romantic era in music. His works contain romantic images and moods. These characteristics are related to the dance emotion, so his works are effective in dance music.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utilizations of F. Chopin's works as dance music.

The characteristics of F. Chopin's works could b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First, he expressed romantic imagery through absolute music. His absolute music had something in common with dance beyond language. Second, he expressed the freedom and passion of the Romantic era by using the piano's polyphonic characteristics, resonances, and delicate skills. These acoustic characteristics are reminiscent of a fantastic stage in a romantic ballet. Third, he composed folk dances as artistic piano pieces. They are instrumental pieces based on folk dances, not as accompaniments. Lastly, his music is inherent in literary characteristics. It is a literary work expressed in sound and a dance music with synesthesia.

The utilizations of F. Chopin's works in dance can be considered into four categories. First, expressing abstract images: to extend his music to various sounds. Second, combining with literature: to connect his works with dance scripts and storytelling. Third, creating for dance music: to utilize as a model for composition, arrangement, and production for dance music. Finally, utilizing as background music: to use his works as background music suitable for the story of dance.

<key words> F. Chopin, dance music, abstract images, pianism, literary character, synesthesia, folk music, background music

<주요어> 쇼팽, 무용음악, 추상적 이미지, 피아니즘, 문학성, 공감각, 민속 무곡, 배경음악

쇼팽은 독창적인 음악언어를 구사한 작곡가로서 “피아니스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가”(Independent, 2022년 10월 30일)로 평가받고 있다. 피아노의 시인으로도 알려진 그의 음악에는 시적詩的 감수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것을 동경하던 시대적 성향이 음악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반음계 선율 진행, 몽환적인 화성, 섬세한 연주기법, 페달링 등 독자적인 음악어법을 사용하여 낭만적 심상을 효과적으로 표출하였고, 왈츠, 마주르카, 폴로네즈 등 민속 무곡에 예술성을 부여하여 고품격의 연주곡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그의 음악이 섬세하고 낭만적이며 많은 춤곡을 다루고 있는 만큼 쇼팽의 레퍼토리는 무용 공연이나 발레수업 반주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포킨이 안무한 《Les Sylphides》를 비롯하여 노이마이어의 《Lady of the Camellias》, 애쉬튼의 내러티브 발레 《A Month in the Country》, 로빈스가 안무한 《Dances at a Gathering》, 《In the Night》, 《Other Dances》 등 20세기 이후 그의 음악은 새로운 공연음악으로 재조명되고 있으며, 많은 발레 피아니스트들이 쇼팽의 작품을 활용하여 발레수업용 음반을 발매하고 있다<sup>1)</sup>.

쇼팽에 대한 연구는 이미 다각도로 실행되어 왔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홈페이지에 ‘chopin’을 키워드로 입력하면 5,000점 이상의 단행본과 3,000편 이상의 연구논문이 검색되며 해외 자료까지 포함하면 30,000건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sup>2)</sup>. 그런데 단행본의 대부분은 일반인들의 관심을 주목시키기 위해 쇼팽의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그의 생애와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학술연구는 주로 음악전공자들의 전문영역에 편중되어 있다. 문영미(2016)의 “쇼팽의 교수법과 피아노 연주기법”에 대한 연구, 김종균(2021)의 “쇼팽의 전주곡에 나타난 장식음의 구조적 역할과 확장성”, 그리고 정희원(2019, 2021)의 “쇼팽의 음악에서 나타나는 액자 형식”과 “다층적 전조 구조” 등 많은 연구들이 연주법, 화성법, 악곡 구조 등을 다루고 있으며, 쇼팽의 춤곡에 대해서는 민지애(2015)의 “쇼팽의 마주르카에 나타난 민족주의 음악적 성격 연구”, 송무경(2010)의 “쇼팽 마주르카의 구조분석과 해석학적 접근의 상호작용”, 최연해(2014)의 “쇼팽 마주르카 연주템포 분석을 통한 음악해석 비교

<sup>1)</sup> 인터넷을 통해 Raco, B., Vadim, M., Dabizljevic, M., 김한나, 김지연 등 쇼팽 음악을 다룬 많은 국내의 발레 피아니스트들의 음원 및 악보 자료를 볼 수 있다.

<sup>2)</sup> 국립대학교 성곡도서관 (2022년 10월 30일) <https://lib.kookmin.ac.kr/#/total-search?keyword=chopin>

연구” 등 연구 주제가 마주르카에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쇼팽의 특정 춤곡을 논하거나 쇼팽 음악의 의의 및 가치에 대한 원론적인 연구, 또는 연주법, 악곡 구조 등 음악전공자들을 위한 자료에 편재되어 있다.

쇼팽의 음악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하지만 무용과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시각적 심상으로 인하여 더욱 풍성한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된다. 무용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쇼팽의 음악은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차별화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무용 음악으로 활용하는데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특히 컴퓨터를 활용하여 쉽게 음악을 제작하고 인공지능 음악과 각종 사운드 제작 애플리케이션이 난무한 현 시점에 있어 무용의 정서를 담고 있는 예술성 높은 정통음악에 대한 연구는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쇼팽 작품의 특성을 무용음악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무용을 위한 활용방안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 II 쇼팽 작품의 무용음악적 특성

### 1. 추상적 이미지\_낭만적 심상, 절대음악

모든 예술은 낭만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술은 비록 소재를 실생활에서 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변형시켜 일상 세계와 다소 거리가 먼 새로운 세계를 필연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이다(Grout, D. J., Palisca C. V., 1988, 편집국 역, 1996:648).

쇼팽의 음악에는 초현실적 낭만주의의 이상이 담겨 있다. 그라우트는 “음악이 낭만주의 예술의 고유한 영역인 인상과 사상, 그리고 감정의 흐름을 암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고 하며 “질서 있게 배열된 음향과 리듬이 구체적인 사물의 세계와 거의 완전하게 분리”되어 무한계성을 표방하는 낭만주의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하였다(Grout, D. J., Palisca, C. V., 1988, 편집국 역, 1996:650). 쇼팽은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서 “암시적이고 고백적인 선율, 풍부한 화성 반주, 폭 넓은 분산화음, 화려한 패세지, 정교한 장식음”(이연희, 2000:178) 등 낭만적 서정성과 극적인 음악적 표현을 피아노라는 악기에 모두 담아냈다. 그는 표제음악<sup>3)</sup> 보다는

<sup>3)</sup> 음악 외적인 이야기, 사상, 자연 등을 표현한 음악(김은수, 2022:56)

절대음악을 추구하여 음, 울림, 음향을 통해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절대음악은 제목과 가사 없이 기악으로 연주되는 곡으로서 “음악의 차원 높은 언어적 특성을 인정하데서 성립한 것”(서인정, 2006:113)이라 할 수 있다.

베를링어는 바로 이곳 ‘모든 의심과 고통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대양으로 사라져 버리는 음악의 나라’, 그 믿음의 나라로 조용히 들어가고자 했다. 이러한 믿음의 나라를 티크는 음악의 장르 중에서도 특히 순수 기악음악, 즉 절대음악이 구현하고 있다고 보는데, -중간 생략- 절대음악의 음을 ‘섬세하게 흐르는 맑고 청명한 시냇물’과 비교하였다. -중간 생략- 그는 이렇게 절대음악의 가치를 이성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흘러가는 영혼과 영혼의 감정에 두었다(권정선, 2005:223).

절대음악과 감정과의 관계를 조성, 음정, 리듬, 화성, 빠르기와 나타냄 말, 악기 편성 등으로 나누어 고찰한 연구에 의하면 “강한 성격의 조성에는 일반적으로 유쾌함, 대담함, 진지함, 장엄함이 표현되고 부드러운 성격의 조성에서는 아침, 슬픔, 상냥함 등이 표현 된다”(김미애, 1999:31). 또한 “매끄럽게 흐르면서 순차진행일 때는 아양스럽거나, 슬프거나, 상냥한 느낌이고, 좀 부딪치면서도 도약 진행일 때는 그와 반대의 감정이 일어난다. 상행진행은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하행진행은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나타낸다”(김미애, 1999:32). 음악의 빠르기에 있어서 아다지오는 비탄을, 라멘토는 애도를, 안단테는 희망을, 아페투오소는 사랑을, 알레그로는 편안함, 그리고 프레스토는 열망과 연결 지을 수 있다(Matteson, J., 1739, 김미애, 1999:35, 재인용).

쇼팽은 주로 녹턴, 즉흥곡, 전주곡, 스케르초 등 특정 성격을 내포한 피아노 소품을 작곡했으며 디아스포라<sup>4)</sup>로서의 삶의 애환, 사랑, 열망, 환희, 고통 등 내적인 감정을 연주곡으로 표현하였다. 성취할 수 없는 것, 환상적인 것, 모호하고 추상적인 분위기를 추구하던 낭만시대의 감성을 다양한 성격의 음계, 매혹적인 화성과 표현법으로 엮어낸 것이다. 쇼팽의 이러한 성향에 대해 최자명(2002:7)은 “드뷔시 이전의 작곡가들 중에서 시각적 환기를 염두에 두고 ‘탐색적’인 표현충동을 관찰해나간 조숙한 인상주의자”로 평가한다. 가사와 내용을 갖지 않아도 쇼팽의 음악은 다양한 감정과 낭만적 심상을 암시, 은유, 상징하고 있고 절대음악으로서의 미적가치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신체, 움직임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무용예술과 매우 밀접한 공통점을 가지며, 무용과 결합했을 때 사운드와 움직임의 유기적 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시킨다.

4) 쇼팽은 프랑스 혈통의 폴란드인으로서 21세때 '폴란드인의 데이주(민족 데이동)'을(를) 계기로 프랑스에 거주, 생을 마칠때까지 조국에 돌아가지 못했다.

## 2. 공간성\_음향적 특성, 피아니즘

그의 마주르카에는 상상할 수 없는 세밀함이 있다. 그는 해머가 현들을 단지 스치고만 지나가듯, 극단적으로 아주 작고 부드럽게 연주하여 두 배로 흥미 있게 만드는 법을 찾았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 작아서 어떤 이들은 악기에 다가가서 마치 공기의 요정이나 꼬마 요정들의 음악회인양 귀를 기울인다(Kalberg, J., 1996, 채현경, 2010:21, 재인용).

쇼팽은 피아노 악기의 장점을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한 작곡가이다. 쇼팽이 활동했던 시기에는 산업혁명의 여파로 피아노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어 당대 최고의 악기가 되었다. 피아노는 여느 악기들과 달리 선율, 화성, 리듬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어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의 역할이 피아노 한 대로 수행 가능하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수많은 피아노곡들이 작곡되었고 오케스트라 곡도 피아노 악보로 초안을 잡곤 했다.

특히 피아노음악은 19세기에 악기의 개량으로 기교와 표현기법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낭만파 최고의 음악으로 자리 잡았다. 19세기 피아노는 1820년경 영국의 철제 프레임으로 큰 음량과 더 나은 레가토가 가능해졌고, 펠트로 덮인 해머로 다이내믹의 폭이 확대되었으며, 1821년 에라르사의 이중 이탈 장치액션(double escapement)으로 빠른 연타음<sup>5)</sup>을 낼 수 있었다. 음역은 1820년경에 6옥타브, 1850년경에 7옥타브로 확장되었고, 댄퍼페달은 풍부한 공명효과와 새로운 음색의 묘미를 가져다주었다(Grout, D. J., Palisca, C. V., Burkholder, J. P., 2006, 최은혜, 2015:1, 재인용).

쇼팽의 발라드는 미츠키에비치<sup>6)</sup>의 시詩에 영향을 받아 음색과 음향이 다채롭게 묘사된다. 평온함, 격정적 감정, 동경, 웅대함, 그리움 등 혼합된 감정 표현에 대해 고사카는 “다양한 음악요소를 도입하는 다이내믹한 음악전개에 의한 새로운 음향 형식, 그것을 쇼팽은 ‘발라드’라 부르기로 한 것”(Kosaka, Y., 2010, 박선영 역, 2016:90)이라 해석했고, 번스타인은 쇼팽의 “흠 없는 레가토와 따스함”(Bernstein, S., 2005, 송지혜 역, 2019:22)을 표현하고자 페달링에 대해 다각도로 고찰하였다. 또한 쇼팽의 프렐류드는 “연습곡, 즉흥곡, 마주르카, 녹턴, 아리아, 레치타티보 그리고 칸타빌레 양식”(김종균, 2021:3) 등 다양한 스타일로 표현되며 여기에 정교한 장식음을 통해 피아노 고유의 색채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쇼팽은 피아노의 다성적 특성, 울림(공명), 정교한 장식음 등 섬세한 피아니즘을 통해 다양한 스타일의 음색과 음향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다층적 전조, 매력적 화성, 신비감을 자아내는 반음계적 선율 등은 낭만적 정취를 자아내어 절대음

<sup>5)</sup> 같은 음을 연달아 반복해서 빠르게 연주하는 기법, 건반을 눌러 소리를 낸 후 건반이 제자리로 돌아오자마자 또 다시 누르는 기법인데 이 때 악기의 성능이 좋지 않으면 명확한 소리를 내기 어렵다.

<sup>6)</sup> 19세기 폴란드의 낭만주의 시인이자 작가

악의 메타포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는 낭만시대의 신비로운 감성, 자유, 열정, 성취 불가능한 것에 대한 동경, 갈망 등을 표현하는데 매우 적절한 분위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환상적인 공간을 연상시킨다. 박경숙(2012:145)이 “《Les Sylphides》의 선율에 따른 포킨의 춤 구도와 상징적 포즈가 브노아의 무대예술에 부합되어 암시로서 주제를 강화시키고 사물을 넘어선 원초적 성질을 표출해낸다”고 하였듯이 쇼팽의 음악은 몽환적 분위기의 백색발레 《Les Sylphides》 안무에 영감을 주어 추상적 움직임, 상징주의 무대라는 매혹적인 공간을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 3. 민속 무곡의 특성

쇼팽이 39년의 인생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온 작품이 마주르카이다. 쇼팽 이전의 작곡가들도 마주르카를 작곡하기는 했지만 예술적인 악곡으로서 생애에 걸쳐 계속 작곡해 온 음악가는 쇼팽이 유일하다. 쇼팽의 마주르카 특유의 울림에 매료된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애상과 섬세한 아름다움, 그리고 새겨내는 듯한 리듬에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다(Kosaka, Y., 2010, 박선영 역, 2016:157-158).

쇼팽이 작곡한 피아노곡들 대부분이 절대음악부류에 속하며 악기의 특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반영한 예술 연주곡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음악은 “선율이 아름답고 시적이며 민속 무곡에 기초한 작품이 많아서 발레음악으로 자주 편곡된다. 그의 무곡은 슬라브 특유의 동양적 색채가 강한 폴란드 토착의 민속 무곡리듬, 화성, 음계 등을 바탕으로 하며 여기에 프랑스 귀족들의 살롱 분위기에 맞도록 현란한 장식, 정교한 끝맺음, 전체적인 구조의 선명함 등 높은 예술적 가치를 부여한 연주회용 무곡이다”(김은수, 1996:90). 그가 작곡한 무곡들은 마주르카를 비롯하여 왈츠, 폴로네즈, 볼레로, 타란텔라, 에코세즈, 부레, 콩트르당스 등 다양하다. 이 중 마주르카와 폴로네즈는 폴란드의 춤곡으로서 조국의 전시 상황에 프랑스에 거주하던 쇼팽은 음악을 통해 힘찬 기상과 영웅심을 전했다.

마주르카는 지방색이 강한 ‘마주르’, ‘쿠야비아크’, ‘오베르크’의 세 가지 리듬유형을 특징으로하는 “쇼팽이 가장 사랑한 장르”(Kosaka, Y., 2010, 박선영 역, 2016:157)이다. 마주르카가 “폴란드 서민의 정서와 문화를 대변”(민지애, 2015:195)한다면, 폴로네즈는 “주요예식이나 귀족사회의 무도회를 위한 음악”에 사용되었던 장르로서 혁명적이고 힘찬 폴란드 민족의 정신을 대변하는 영웅시의 의미가 크다. 쇼팽은 마주르카와 폴로네즈를 예술적 연주곡으로 승화시켰고 이후 차이콥스키, 무소르스키, 스크랴빈, 립스키코르사코프 등 유명 작곡가들도 이 장르의 음악을 이어나갔다.

쇼팽의 춤곡은 민속 무곡을 바탕으로 민족주의 정신을 부여함과 동시에 다층적 조성 구조, 낭만적 화성, 지역적 특성이 가미된 음계, 독자적인 올림의 페달링, 루바토를 사용한 유동적 리듬 등 고도의 음악적 기법이 결합되어 있다. 절대음악을 추구하던 쇼팽은 그의 삶과 영혼의 내러티브를 춤의 형태를 빌어 전개하였고, 민속 무곡의 이미지와 분위기를 통해 섬세하고 풍부한 감수성을 표출하였다. 그의 작품은 민속춤 반주를 위한 실용성보다는 춤의 리듬, 성격 및 정신을 함유하고 있는 고품격의 무용음악적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4. 문학적 특성

쇼팽의 음악은 고상한 정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엘리트들의 취향에 부합한다. 그의 영광은 이른바 귀족적이고 상류층의 기호에 맞게 향기로우며 그것이 쇼팽의 인격과 재능에 특징을 더했다. 그는 영혼의 시정詩情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시인이고 음악가이다. -하이네-(Kosaka, Y., 2010, 박선영 역, 2016:166 재인용)

“음악과 문학의 결합은 낭만주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윤문영, 윤지영, 2020:970). “문학이라는 매개체는 작곡가로 하여금 음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체험을 표현하도록 하는데”(권정선, 2006:160), 이를 가장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묘사할 수 있는 것이 기악음악이다. 쇼팽은 “미츠키에비치, 비트피츠키, 발레스키 및 그라신스키의 시를 음악에 도입했다”(Bourniquel, C., 1994, 안근종 역, 1995:33). 그러나 쇼팽은 시를 노래할 때 성악곡 보다는 피아노 음악을, 표제음악 보다는 절대음악을 선호했고 구체적인 제목이나 스토리를 표면으로 내세우지 않는다. 그는 ‘말과 글’로써 주제를 규정하지 않고 “강렬하게 집약된 선율시(tone poem)”(Grout, D. J., Palisca, C. V., 1988, 편집국 역, 1996:679)를 통해 내재된 감정을 드러낸다. 그는 매혹적인 화성, 유동적인 리듬, 화려한 선율선 등 독자적인 음악 언어로 그리움, 이별, 아픔, 회상, 열정, 사랑, 기다림 등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쇼팽의 음악에는 언어의 한계를 초월한 형이상학적 현상, 감정들이 펼쳐지며 질풍노도의 낭만주의적 흐름이 은유적으로 암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문학성이 짙은 발라드<sup>7)</sup>를 피아노 독주곡으로 만들었다. 폴란드의 민족정신이 담긴 미츠키에비치의 내러티브적 서사시에 영감을 받아 시의 아름다움과 열정을 피아노 선율로 노래하면서 ‘발라드’라는 새로운 독주곡 장르를 탄생시킨 것이다.

<sup>7)</sup> “발라드는 중세 시대부터 문학적 요소와 음악적 요소가 결합된 광범위한 대중 장르로서 문학적 측면의 발라드Ballad와 시와 음악이 결합된 발라드Ballade로 나뉘는데”(김태정, 2017:106) 후자는 서사적이고 극적인 성격의 노래·춤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발라드는 서사시의 틀과 내용을 담은 쇼팽의 독자적 피아노 장르이다. 그러나 특별히 이러한 틀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쇼팽의 모든 음악에는 시적인 정서가 내재되어 있으며 운율이 있고 암시적이다. 고도의 피아노 기교로 유명한 리스트는 쇼팽의 연주회에서 “폴란드의 비탄은 그 음조에서 신기할 만큼 신비한 시정詩情을 끌어냈다. 쇼팽 고유의 섬세함과 우아함은 독특하고 자유분방한 다수의 곡선, 수없이 많은 장식식이 되어 나타난다”(Kosaka, Y., 2010, 박선영 역, 2016:167 재인용)고 평가했다. 쇼팽의 음악은 제목이 없어도 후대에 표제가 붙여질 만큼 서정적, 서사적 정서를 함유하고 있다. 이로써 쇼팽의 곡들은 음악언어로 표현된 문학작품이라 볼 수 있다. 음악이 갖는 문학적 특성은 문학이 소리를 통해 이미지로 그려지는 공감각적 현상과 연결된다. 이는 무용에서의 추상적 이미지 표현, 움직임 탐색, 주제와 스토리 전개와도 관련성이 높은 무용음악적 특성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 무용을 위한 쇼팽 작품 활용방안

#### 1. 추상적 이미지 연출

추상은 구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떤 대상 혹은 세계로부터 하나의 상을 추려내어 표현하는 것’(위키백과, 2022년 10월 31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추상과 추상예술에 대해 박서영(2021:104)은 “추상은 모든 개념이나 판단이 성립하는 기초적 사고 과정을 이루고 있으며, 추상예술은 자연에 대해 인간이 가져온 오랜 믿음과 순수한 태도의 변화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정리하였다. 20세기에 접어들어 쇤베르크는 무조음악을, 루솔로는 소음을, 케이지는 침묵을 통해 기존의 음악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념의 음악을 제시하였고, 칸딘스키는 추상작업에 대해 “음악이 갖는 순수성과 영성(spirituality)을 시각화하는 것”(오경은, 2015:98)으로 설명하였다. 김경희(2014:28)는 “칸딘스키의 추상미술을 이해하는데 있어, 음악적 요소가 매우 중요함”을 언급하였고 발레 작품에 내재된 추상회화적 특징을 음악을 시각화하는데서 찾았다. 즉, 20세기 초반의 추상음악은 기존 음악의 틀에서 벗어나 실험적이고 모더니즘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고, 칸딘스키 역시 불협화음과 비서술적 음악에 영향을 받아 전통적 음악이 아닌 ‘사운드’에 집중하여 소리와 색을 연계하였지만 ‘무엇을’이 아닌 ‘어떻게’로 시각을 돌려 ‘공감각’이라는 점에 초점을 둔다면 무용에서 추상적 이미지를 불러내는 음악은 100년 전 추상음악이 아니라 더 확대된 의미의 음악, 즉 작품에

스며들어 무용의 뉘앙스를 잘 살릴 수 있는 음악이어야 할 것이다.

쇼팽 음악은 비화성음 및 다층적 전조 구조를 통한 고급스런 화성법, 반음계와 선법, 피아노의 기교를 통해 펼쳐지는 화려한 선율선, 내러티브적 성향의 루바토를 통해 느껴지는 유연한 리듬, 민속 무곡에서 전해지는 지역적 이미지와 분위기 등 독자적인 음악적 색채감을 가지고 있기에 무용에서의 감정 및 움직임 표출에 영감을 부여한다. 또한 피아노의 울림, 부드럽고 따뜻한 음향 등 낭만주의와 인상주의의 경계를 넘나드는 공간음악적 특성은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음악적 특성은 움직임과 결합하여 자연스럽게 추상적 이미지를 소환한다. 쇼팽의 작품은 주로 피아노 독주곡이므로 대규모의 관현악곡보다 라이브 연주가 용이한데, 라이브 피아노로 연주할 경우 콘솔을 사용해 소리의 질감을 매혹적으로 스타일링 하고, 여기에 다양한 재질의 입체 효과음, 무용수의 목소리 등을 더하면 추상적 이미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

## 2. 문학과 결합한 융합 작품

쇼팽은 절대음악을 추구했던 작곡가이다. 그는 가사가 있는 오페라, 가곡 등 성악곡을 거의 작곡하지 않았고 피아노 음색만으로 시적 정서를 노래했다. 낭만시대에는 표제음악이 성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작품 제목이 곡에 대한 상상의 폭을 제한시킨다고 여겨 제목 붙이기를 회피했다. 대신 작품의 성격을 나타내는 악곡 유형을 도입해 형식화하였다. 그 예로 밤의 정서를 담아 꿈을 꾸듯 조용하고 차분한 성향의 곡은 ‘녹턴’으로, 몽상적인 기분이나 로맨틱한 환상을 표현한 곡은 ‘환상곡’으로 유형화했고, 폴란드 서사시의 감동을 음악으로 전달한 곡으로서 서사적, 극적, 서정적 성격이 융합된 음악은 ‘발라드’라 칭했다. 이 외에도 쇼팽은 다양한 성격의 피아노 소품을 작곡했는데 최은혜(2015:i)는 “쇼팽이 비록 표제음악을 기피했으나, 발라드, 환상곡, 환상폴로네즈에서는 쇼팽음악의 이야기적 풍취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쇼팽 음악의 문학적 감정은 절대음악 해석 자료를 통해 읽을 수 있다. ‘음정과 정서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증음정은 ‘불안’, ‘슬픔’, ‘탄식’, ‘그리움’, ‘거친’, ‘소심한’의 감정, 감음정은 ‘고통’, ‘비탄’의 감정, 단음정은 ‘애수’, ‘애원’, ‘부드러운’, ‘겁먹은’, 그리고 장음정은 ‘만족스런’, ‘유쾌한’, ‘즐거움’, ‘성급한’ 감정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sup>8)</sup>. 쇼팽은 이러한 음정들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선율시(tone poem)

<sup>8)</sup> 이현자(2008:111)는 쇼팽 환상곡의 언어적 해석을 음악적 요소로 분석하면서 키른베르거의 음정과 정서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음정 뿐 아니라 선율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도 감정이 다르게 나타난다.

로써 서사시를,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삶을 그려냈다.

쇼팽의 음악은 시적 감수성, 서사적, 극적, 서정적, 내러티브적 특성을 가지며 특정 단어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안무가는 쇼팽 음악에서 보이는 텍스트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 에쉬튼은 쇼팽의 변주곡, 환상곡, 안단테스피아나토와 그랜드폴로네즈를 사용하여 트루게네프의 희곡 《A Month in the Country》을 내러티브 발레로 제작하였고, 노이마이어는 뒤마의 소설 《The Lady of the Camellias》을 드라마 발레로 제작하였다. 노이마이어는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소나타, 전주곡, 발라드, 환상곡, 안단테스피아나토와 그랜드폴로네즈, 왈츠를 비롯한 춤곡들을 사용했는데 이에 대해 김다희(2014:v)는 “주인공의 심리와 동일한 분위기의 음악을 사용하여 스토리와 음악이 조화를 이루면서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고 평가했다. 두 작품 모두 안단테스피아나토와 그랜드폴로네즈를 공통으로 사용한 것을 통해 안무가의 각기 다른 해석과 음악 활용의 다양성을 볼 수 있다. 쇼팽의 음악은 제3의 작가들에 의해 쓰인 희곡이나 소설을 대본으로 하지 않더라도 쇼팽 음악에 담긴 문학적 내용, 정서에서 전해지는 느낌을 작품 주제로 삼거나 무용 대본에 반영하거나 스토리텔링의 표현방식으로 활용하는 등 여러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 3. 음악 창작 모델 제공

쇼팽의 음악은 무용음악 창작의 표본이 된다. 그의 작품은 대중들에게 매우 친숙하게 알려져 있으며 연주회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레퍼토리로 평가 받고 있다<sup>9)</sup>. 쇼팽 음악의 낭만적 정취는 듣는 이들에게 매혹적인 감성을 전달하기에 그의 음악은 TV, 광고, 영화 등 대중적 매체에 자주 등장한다. 그의 음악은 정교한 작곡법, 섬세한 피아니즘으로 신비롭고 환상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악기의 매력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장식음, 페달링, 패시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였고 여기에 고차원의 화성을 더했다. 이러한 특성은 피아노로 다양한 질감의 음악을 표현해야 하는 발레 피아니스트들이 습득해야 할 항목이다.

쇼팽은 조성 및 화성을 혁신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새로운 조성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전조 구조를 사용하여 시공간을 이동한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정희원(2019:63)은 “쇼팽의 음악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조성의 영역을 다른 시공간으로 해석”하며 음악 안에서의 시공간성을 액자 형식과 연결시켜 기술하였다. 쇼팽은 모티

<sup>9)</sup> COVID-19 이전 2017~2019년 서울지역 주요 연주회장에서의 피아노 독주회 레퍼토리를 분석한 결과 쇼팽이 1위를 차지했으며 그의 발라드 3곡이 1, 2, 3위를 차지하였다(김영, 2021:88-90).

브를 전조하거나 다른 위치로 이동-재배치시키는 블록 기법을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블록 형태의 모티브를 사용하는 것은 4카운트단위로 프레이즈를 구성해야하는 발레수업음악 작곡 및 편곡에 매우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이처럼 쇼팽의 음악은 무용 공연을 위한 작곡 및 연주, 발레수업을 위한 반주, 그리고 발레수업용 음반 제작을 위한 작·편곡 및 녹음에 훌륭한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 4. 배경음악으로 활용

배경음악은 내용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부수적으로 보조하는 음악이다. 부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더라도 배경음악의 특성, 내용, 음량 등은 관객의 감상 몰입도 및 작품 이해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배경음악의 범위는 앰비언트 사운드, 효과음, 목소리, 리듬 비트 및 정통 클래식 음악 등 전 장르를 포함한다. 또한 배경음악은 “관객의 감성을 증진시키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대사로 표현할 수 없는 감성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내러티브 보완 기능”(박덕춘, 2017:416)을 가지고 있다. 배경음악의 친숙도와 메시지와의 조화를 중심으로 연구한 고한준, 전해경(2007:96)은 “TV광고 배경음악이 친근할수록, 그리고 배경음악과 광고의 메시지의 조화가 잘 이루어질수록 소비자들은 광고에 대해 보다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무용 공연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때 무음을 사용하는 것 보다 작품의 내용과 어울리는 친근한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작품 이해도를 상승시킨다는 것과 연결할 수 있다.

쇼팽의 음악은 화려하고 환상적인 성향의 곡부터 여성스럽고 차분한 분위기의 곡까지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공공 연주의 비르투오소성과 살롱의 우아한 서정성의 결합, 선율과 화성의 독창성, 살롱 이데올로기와 시장 경쟁으로 고무된 피아노 연주 기술,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음악적 삶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듯이”(Groult, D. J., Palisca, C. V., Burkholder, J. P., 2006, 민은기 외 역, 2013:76) 쇼팽의 음악은 대중에게 친숙할 뿐 아니라 삶을 담은 다양한 감정들이 서사시처럼 흐르고 있기에 배경음악으로서의 효용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쇼팽은 낭만시대의 정서를 음악으로 그려낸 작곡가이다. 그는 “피아노의 관용적 사운드와 음형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Grout, D. J., Palisca, C. V., Burkholder, J. P., 2006, 민은기 외 역, 2013:76)하였으며, 피아노 음색 하나로 서사적, 극적, 서정적 감정을 연출한 피아노의 시인이다. 디지털 소음이 만연하고 음악의 범위가 무한 확장되어 방향을 잃어가기 쉬운 현 시점에 정통 음악에 대해 되짚어보고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활용법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쇼팽 작품의 특성을 무용음악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를 무용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쇼팽 작품의 특성은 크게 4개의 범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쇼팽은 추상적, 낭만적 심상을 절대음악으로 표현했다. 다양한 감정을 암시, 은유, 상징하는 그의 절대음악은 언어의 틀을 넘어서는 무용의 이상과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둘째, 쇼팽은 피아노의 다성적 특성, 울림, 섬세하고 정교한 피아니즘을 사용함으로써 낭만시대의 신비로운 감성, 자유, 열정, 갈망 등을 표현했다. 이러한 음향적 특성은 낭만발레의 환상적인 공간을 연상시켰다. 셋째, 쇼팽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민속 무곡을 예술적 가치가 높은 연주곡으로 작곡하였다. 그의 작품은 민속춤 반주를 위한 실용성보다는 춤의 리듬, 성격 및 정신을 함유하고 있는 고품격의 무용음악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쇼팽의 음악에는 문학적, 시적 감수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의 음악은 음으로 표현된 문학작품이라 평가할 수 있으며 문학이 소리를 통해 이미지로 그려지는 공감각적 특성은 무용음악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무용을 위한 쇼팽 작품의 활용방안은 4 가지 범주로 고찰해보았다. 첫째는 추상적 이미지 연출에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추상의 개념을 추상무용, 추상음악이라는 근대적 사조가 아닌 현 시대에 반영하는 의도로 확장시켜 쇼팽의 절대음악, 공간적, 음향적 특성을 이 시대의 음향으로 변형, 혼합하도록 유도하였다. 둘째는 문학과 결합한 융합작품에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시정詩情이 느껴지는 쇼팽 작품의 공감각적 특성을 무용의 주제, 대본, 스토리텔링과 연결하도록 제안하였다. 셋째는 무용음악 창작의 모델로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의 음악은 섬세한 표현 및 민속 무곡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한 “심미적, 장르적 측면에서 무용과의

유사성을 갖고 있기에”(김지연, 2019:4) 무용음악 창작의 표본이 된다. 이에 그의 작곡 법 및 피아니즘을 공연음악 작곡 및 연주, 발레수업 반주, 발레수업용 음반제작을 위한 작·편곡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쇼팽의 작품을 배경음악으로 활용할 것에 대해 고찰하였다. 쇼팽 작품은 내러티브적 특성, 대중적 친숙함, 높은 예술성, 다양한 장르적 성향을 갖추고 있기에 무용의 상황, 환경 등과 결합하여 배경음악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변화하는 시대에 무용음악의 형태도 매우 다양하게 바뀌고 있다. 첨단 기술의 실용적 음악이 무용에 사용되는 현 시점에 본 연구는 무용음악의 올바른 방향을 되짚고자 낭만시대의 정서를 담은 쇼팽의 음악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대가 바뀌어도 예술의 정통성은 보존되어야 하며 해체를 통한 융합, 변형, 응용, 재구성 등은 정통예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조화로울 것이다. 더욱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예술의 뿌리를 되짚어보는 무용음악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
|------------------|---|
| 고한준, 전해경 (2007), | “TV 광고에서 배경 음악이 소비자의 기억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배경 음악의 친숙도와 메시지와의 조화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학회, <b>광고학연구 18(2)</b> , 83-101.    |
| 권정선(2005),       | “유토피아에 대한 낭만적인 그리움, 바켄로더와티크의음악미학”, 한국서양음악학회, <b>서양음악학 8(1)</b> , 213-240.                                 |
| _____(2006),     | “19세기 초 예술통합 담론과 낭만주의 음악미학”, 한국서양음악학회, <b>서양음악학 9(3)</b> , 149-168.                                       |
| 김경희(2014),       | “조지 발란쉴(George Balanchine)의 「보석(Jewels)」에 내재된 추상회화적 특징 연구”, 대한무용학회, <b>대한무용학회논문집 72(1)</b> , 19-40.       |
| 김다희(2014),       | “존 노이마이어(John Neumeier)의 「까멜리아 레이디(The Lady of the Camellias)」에 나타난 드라마적 성향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 김미애(1999),       | “바로크 시대의 감정이론(Affektenlehre)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b>이화음악논집 3</b> , 5-44.                              |
| 김복선(2004),       | “John Neumeier 의 안무성향에 관한 연구-「The Lady of the Camellias」를 중심으로”, 한국무용교육학회, <b>한국무용학회지 4(1)</b> , 25-33.   |

- 김영(2021), “서울지역 주요 연주회장에서의 피아노독주회 현황과 레퍼토리 분석(2017-2019)”,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음악교수법연구 22(1)**, 77-101.
- 김은수(1996), **무용음악의 이해**, 서울: 삼신각.
- \_\_\_\_\_(2022), “뉴미디어 시대 고등학교 안무실습을 위한 음악 활용방안”,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3(3)**, 49-62.
- 김종균(2021), “쇼팽의 전주곡 Op. 28, No. 4에 나타난 장식음의 구조적 역할과 확장성”,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음악교수법연구 22(2)**, 1-23.
- 김지연(2019), “쇼팽 음악을 활용한 발레클래스 음악 창작”,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종합예술대학원.
- 김태정(2017), “쇼팽의 발라드에 나타나는 혁신적 구조”, 한국음악학회, **음악학 25(1)**, 103-152.
- 문영미(2016), “쇼팽의 교수법과 피아노 연주기법: 교사와 학생을 위한 새로운 통찰력”,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음악교수법연구 17(2)**, 343-366.
- 민지애(2015), “Fryderyk Chopin의 Mazurka에 나타나는 민족주의 음악적 성격 연구”, 한국피아노학회, **피아노음악연구 9(0)**, 193-223.
- 박경숙(2012), “무용작품에 나타난 알렉산드르 브노야의 상징주의 무대미술에 관한 연구 - 발레뤼스의 <아르미르의 별장>과 <레 실피드>를 중심으로 -”, 우리춤연구소, **우리춤과 과학기술 8(3)**, 132-153.
- 박덕춘(2017), “TV 다큐멘터리의 배경음악이 수용자의 회상 기억, 몰입도, 흥미유발,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15(10)**, 411-417.
- 박서영(2021), “춤에서 움직임의 흔적과 추상 이미지에 관한 고찰: 트리샤 브라운과 안느 테레사 드 키어스매커의 작품을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9(3)**, 101-124.
- 서인정(2006), “음악적 언어에 대한 해석학적 연구”, 민족음악학회, **음악과 현실 32**, 99-121.
- 송무경(2010), “구조분석과 해석학적 접근의 상호작용-쇼팽의 마주르카 Op.50/3을 중심으로-”, 한국서양음악학회, **서양음악학 13(3)**, 93-131.
- 오경은(2015), “음악의 시각화: 쇤베르크의 후예들과 공감각”, 현대미술사학회, **현대미술사연구, 0(37)**, 95-119.
- 이연희(2000), “쇼팽과 슈만의 피아노음악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한국초등교육 11(2)**, 171-215.
- 이현자(2008), “악곡에서 '환상'의 의미를 만드는 음악적 요소 -쇼팽의 《환상곡 Op.49》의 언어적 해석-”, 한국피아노학회, **피아노음악연구 2(0)**, 107-156.
- 정희원(2019), “음악 속의 음악: 쇼팽의 음악에서 나타나는 액자 형식”, 서양음악연구소, **음악이론연구 33(0)**, 44-69.
- \_\_\_\_\_(2021), “쇼팽의 음악에서 나타나는 다층적 전조 구조”, 서양음악연구소, **음악이론연구 37(0)**, 39-63.
- 채현경(2010), “사이 공간과 쇼팽의 ‘혼종성’ 음악 만들기”, 한국음악학회, **음악학 18(2)**, 7-37.
- 최연해(2014), “쇼팽 마주르카 연주템포 분석을 통한 음악해석 비교 연구”, 한국달크로즈학회, **한국달크로즈저널 23**, 37-58.
- 최은혜(2015), “쇼팽 환상곡(Fantaisie) op. 49에 나타난 극적 요소와 환상적 요소”,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대학원.

- 최자명(2002), “조속한 인상주의자, 쇼팽: 예술사회학의 인상주의와 음악의 낭만주의”, 낭만음악사, **낭만음악 14(2)**, 5-46.
- Bernstein, S.(2005), *Chopin – Interpreting His Notational Symbols*, 송지혜(역, 2019), **쇼팽 연주해석: 악보기호와 페달링**, 서울: 한국피아노교수법연구소.
- Bourniquel, C.(1994), *Chopin*, 안근중(역, 1995), **쇼팽**, 서울: 중앙일보사.
- Grout, D. J., Palisca C. V.(1988), *A History of Western Music*, 편집부(역, 1996), **서양음악사**,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Grout, D. J., Palisca, C. V., Burkholder, J. P.(2006), *A History of Western Music*, 민은기, 오지희, 이희경, 전정임, 정경영, 차지원(역, 2013),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서울: 이앤비플러스.
- Kosaka, Y.(2010), *Chopin*, 박선영(역, 2016), **쇼팽**, 파주: 음악세계.
- 위키백과, “추상(예술)”, 2022년 10월 31일, [https://ko.wikipedia.org/wiki/%EC%B6%94%EC%83%81\\_%EC%98%88%EC%88%A0](https://ko.wikipedia.org/wiki/%EC%B6%94%EC%83%81_%EC%98%88%EC%88%A0)
- Independent, “A troubled genius: The truth about Chopin”, 2022년 10월 30일, <https://www.independent.co.uk/arts-entertainment/music/features/a-troubled-genius-the-truth-about-chopin-1848372.html>